



한우 연구방향 정립과 발전방안 협의회

- 축산기술연구소 대관령지소

한우 연구의 방향이 친환경 및 안전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설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우농가의 소득증대와 사육기반 안정화를 위해 10월31일 강원 평창 소재 축산기술연구소 대관령지소(지소장 나기준)가 개최한 '한우 연구방향 정립과 발전방안' 협의회에서는 '친환경성'이 한우사육 및 유통 등 모든 단계의 핵심으로 강조됐다.

■ 한우개량 분야(남원지소 최연호 박사)

사양기간을 늘린다고 육질등급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24개월령 이후의 육질은 비슷하고, 1등급 이상 출현율은 둔화된다.

또한 육량과 육질간의 상관 관계는 없으며, 성장 정도와 육량은 반비례한다. 육종농가별로 정확한 육종목표를 설정한 후에 번식능력 및 환경적응성을 개량하는 것이 중요하다. 육질 특성을 다양하게 높여 제품 가치를 창출하고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 한우사양기술(대관령지소 장선식 박사)

일관사육·브랜드 쇠고기 유통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청정 한우고기 생산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섬유질 배합사료 및 부존사료자원을 개발해야 한다. 한우사양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현재 한우사육 전문농가의 기술 정도를 파악한 다음 적정사육모델을 만들어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한우사육환경과 시설(축산환경과 강희설 연구사)

기후환경을 고려한 축사구조, 생산비 절감형 종합자동화시스템, 동물복지를 고려한 유기축산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저비용·고효율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악취를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비롯해 가축분뇨 퇴·액비 품질 개선 연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시설·분뇨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축산환경 종합관리에 의한 환경보전형 축산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 한우번식(대관령지소 이명식 연구사)

한우 번식체계를 수립, 번식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용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국내외 시장의 변화에 대비한 대형화된 한우농장들의 우군 관리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첨단 생명공학기법 적용기술 개발과 유전적 다양성을 위한 복원 연구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

■한우고기 가공과 유통(축산물이용과 박범영 박사)

시장 상황과 소비자 욕구 변화에 대응체제가 돼야 한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연계된 유통 기술과 품질예측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영상·센서·인공지능 등 기계에 의한 도체등급판정기술을 개발하고 등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등급별 쇠고기 품질의 균일화 및 등급별·부위별 영양성분 분석이 필요하다.

■산지 초지(대관령지소 이종경 박사)

사료작물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가축분뇨를 최대한 환원해 환경친화적인 조사료를 생산해야 한다. 방목에 따른 물 품질 모니터링 및 수량감소 최소화 재배법 개발 등 환경보호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기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풀 종자도 선별돼야 한다.

■한우 질병(유전자원과 서국현 연구관)

개체별 질병관리에서 더 나아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우군 건강관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축질병 발생 조기예측 및 종합방역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첨단질병 진단기법을 도입해 만성소모성·유전성 질병을 근절하고, 동양의학 등 대체 진료기술을 확립해야 한다. 특히 천연물질 이용을 확대하는 등 항생제 대체물질 개발이 필요하다.

한우고기 품질고급화 종합기술 발표회

- 비타민 A 조절 및 보리 급여 효과 -

축산기술연구소는 지난 10월16일 강원도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 한우고기 품질고급화 종합기술 발표회를 개최, 비타민 A 조절기술 및 보리급여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2001년부터 한우품질고급화연구팀이 한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품질·저비용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평창축협과 공동으로 비타민 A 조절기술개발, 비육후기 보리급여 효과 및 육색개선을 위한 첨가제 시험 등 다양한 시험을 수행해 온 결과, 비육기 사료내 비타민 A 함량 조절로 근내지방도 10%, 1등급 이상 고급육 출현율을 29% 증진시켰으며, 비육후기 3개월간 보리 추가 급여로 증체량 10%, 근내지방도 8% 증진시켰고, 출하시 한우의 스트레스 저감과 에너지 공급강화 첨가제 급여로 육색을 5.2에서 4.4로 개선시키는 등 한우 비육농가에 바로 접목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얻었다.

표 1 사료내 비타민 A 조절과 도체성적

처 리	등심면적 (cm ²)	등지방두께 (mm)	근내지방도	육색	1등급출현율 (%)
대조구	84.5	10.3	5.0	4.6	63.6
비타민 A 조절구	85.9	8.6	5.5	4.2	81.8
개선율(%)	1.7	16.5	10	8.7	28.6

○ 비육기 사료내 비타민 A 함량 조절로 근내지방도 10%, 1등급 이상 고급육 출현율을 28.6% 증진

표 2 한우에 분쇄보리 추가급여에 의한 사양성적 및 도체성적 비교

구 분	대조구	보리 1kg구
개시체중(kg)	584.2	577.2
종료체중(kg)	631.8	630.4
증체량(kg/일)	0.62	0.68
사료섭취량(kg/두/일)		
배합사료	8.10	7.70
보리	-	0.90
볏짚	1.00	1.00
계	9.10	9.60
근내지방도	3.9	4.2
육질등급(1+:1:2,)	3:9:6	4:7:7
육량등급(A:B:C)	3:12:3	8:6:4

○ 비육후기 3개월간 보리 추가 급여로 증체량 10%, 근내지방도 8% 증진

표 3 육색개선 첨가제의 급여에 따른 육색 및 수송감량 변화

처 리	육색	수송감량 (kg)	Hunter Value		
			명도	적색도	황색도
무급여구	5.2	12.8	29.3	17.8	6.6
급여구	4.4	11.0	31.2*	15.8	6.1

○ 육색개선 첨가제 급여에 의해 육색 5.2에서 4.4, 수송감량 14% 개선